

나주 ‘탄소중립 싱크탱크’ 본격 활동

RE100 에너지정책 자문위 첫 회의
에너지 정책·연구 방향·행사 점검
미래 첨단과학도시 비전 실현 총력

나주시의 미래 첨단과학도시 비전 실현을 위한 에너지정책 개발·자문기구인 ‘RE100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나주시는 최근 시청사 이화실에서 자문위원회 출범 이후 첫 회의를 갖고 올해 에너지 분야 정책 및 연구 방향과 주요 행사 계획에 대해 점검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위원회는 에너지·탄소 중립, 물리·화학, 관광·기획,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갖춘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최근 제25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제정된 ‘나주시 에너지 기본조례’, ‘나

주시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주민참여 등에 관한 조례’ 내용을 반영한 ‘나주시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연구용역’ 수립에 있어 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논의했다.

올 하반기 예정된 빛가람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나주시-동신대학교 간 ‘NEXT’전남, 나주 상상 아이디어 톤’ 행사 추진 계획과 관련해 에너지정책 연계 방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아울러 정부 에너지정책에 대한 선도적 대응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지역에 특화되고 실현 가능성 있는 에너지정책 발굴에 분야별 전문가들의 식견과 해안을 아끼지 않기 로 다짐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인사말에서 “나주시 에너지 기본조례 제정과 더불어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나주시와 자문위가 RE100기업 유치

와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실현 가능한 에너지정책 발굴에 힘써 기업과 청년이 찾아드는 미래 첨단과학도시를 완성할 수 있도록 손발을 맞춰 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승일 공동위원장은 “RE100에너지 정책자문위원들의 역할이 가장 필요한 시기가 도래한 것 같다”며 “분야별 지역 에너지 계획 수립 연구용역과 하반기 에너지 관련 행사가 나주시 RE100 에너지 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계 주요 이슈로 떠오른 ‘RE100’은 ‘Renewable Energy 100%’의 줄임말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전력의 100%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자발적인 글로벌 신재생 에너지 캠페인을 뜻한다.

시는 자문위를 중심으로 RE100 수요·공급 기업 유치를 통한 에너지산업 육성, 에너지밸리 활성화 및 주민 체감형 정책 개발, 에너지 국제행사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나주=조충권 기자



목포시가 최근 한양대 국제문화대학과 협약을 맺었다.

/목포시 제공

목포-한양대 국제문화대학, 관광콘텐츠 개발 맞손

프렌즈십 협약 체결

목포시가 한양대 국제문화대학과 협약을 맺고 관광콘텐츠 개발에 나선다.

시는 최근 목포 상그리아 호텔에서 한양대 국제문화대학 문화콘텐츠학과와 관광 콘텐츠 발굴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렌즈십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한 친선 교류 ▲목포관광·문화 자원 콘텐츠 개발 및 홍보 강화 등의 사업을 통해 체계적인 교류를 한다.

한양대 국제문화대학은 협약을 시작으로 목포의 주요 명소부터 숨겨진 스팟 구석구석을 살펴본다. 특히 MZ세대 시각에서 목포를 탐방하면서 목포만의 관광자원을 확인한다.

특히 미식문화갤러리-해관1897에서 해관의 역사를 확인하고 MZ세대와 함께하는 ‘목포의 맛’ 토크쇼와 준비된 음식을 시식함으로써 목포의 미식문화콘텐츠 홍보 방안을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양대 국제문화대학은 이번 답사를 통해 목포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과 방문, 체류까지 유도할 수 있는 콘텐츠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시는 이를 적극 수렴·검토해 향후 관광상품 개발 등에 적극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청년이 찾는 관광도시 목포의 브랜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면서 “문화콘텐츠학과 학생들과 지속적으로 관광 콘텐츠 아이디어를 교류해 청년이 찾는 큰 목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승경 기자



강진군문화관광재단이 최근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광주권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강진군 제공

강진, 광주권역 관광객 유치 사업설명회

강진군문화관광재단(이사장 강진원)이 최근 광주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2023 강진군 관광객 유치 사업설명회’를 갖고 강진관광 활성화

에 나섰다.
강진군 5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현장 소동과, 여행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이날 설명회에는, 광주광역시관광협회 관계자 및 국내 여행사 30개사 50여 명이 참여했다.

강진 인근 전남 지자체의 경우 1박 때 1인당 인센티브가 7,000원에서 1만5,000원 선에 그치고 있지만, 강진군은 2만7,000원을, 당일 여행은 1만2,000원을 지원한다.

특히 무박(타 지역에서 숙박)일 경우에도 1인당 2만 원을 지원해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를 두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는 대규모 관광객 유치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는 강진군의 강력한 의지가 돋보인다는 평가가 담겨있다.

임석 대표이사는 “남도답사 1번지 강진이 이제는 ‘한국 답사 1번지’로도 손색없을 만큼 찬란한 자연 유산과 관광 자원을 갖고 있다”면서 “압도적으로 많은 인센티브를 토대로, 보다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강진=한태선 기자

영암, 제1회 추경예산 7,249억 확정

영암군이 202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7,249억원을 최근 열린 영암군의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했다. 이는 2023년 본예산(6,414억원) 대비 835억원(13.01%) 증가한 것으로, 혁신·인구·청년 정책에 중점을 두고 지

역경제 회복과 농가 안정을 위한 예산이 주를 이뤘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본예산 대비 738억원(12.67%)이 증가한 6,560억원, 기타특별회계는 4억원(3.43%)이 감소한 101억원, 공기업특별

회계는 101억원(20.64%) 증가한 588억원으로 전체 예산액은 835억원(13.01%)이 증가했다.

기능별로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 246억원 ▲환경 179억원 ▲국토및지역개발 149억원 ▲문화관광 89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72억원 등으로 청년 친화 미래경제를 선도하고 생태관광 브랜드 구축 및 지속가능한 농생명산업 육성 등에 중점을 뒀다. /영암=최복섭 기자

무안, 석용·금산2지구 배수 개선 ‘청신호’

국비 126억 확보...내년 착공

무안군은 최근 농식품부로부터 2023년 배수 개선사업에 해제면 금산 2지구는 신규 착수지구로, 해제면 석용지구는 기본 조사지구로 선정돼 국비 각 51억 원, 75억 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배수 개선사업은 전역 국비 사업으로 농업진흥지역 내 50ha 이상의 상습 침수 농경지를 대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배수장, 배수로 등)을 정비해 침수 피해 방지 및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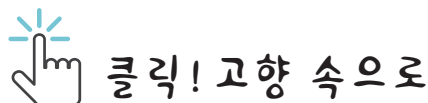
금산 2지구 배수 개선사업은 기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배수문 1개소와 배수로 1.9km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설계를 추진한다. 군은 이번 사

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올해 설계를 완료하고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2024년에 착공할 예정이다. 사업이 추진되면 해제면 용학리와 천장리 일원 57.7ha가 이익을 얻게 됐다.

또한, 석용지구 배수 개선사업은 농식품부에서 기본조사 업무를 위탁받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성 건설교통과장은 “군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전남도, 농식품부를 여러 차례 방문해 건의하는 등 노력한 결과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상습 침수 농경지에 대한 배수 개선사업 대상지를 지속해 발굴해 국비 지원을 건의하고 살기 좋고 안전한 전남의 수도 플랫톱 무안 만들기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박주현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치아동센터 후원금

담양군은 최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유성)의 지역발전기금사업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는 대치지역아동센터(센터장 김소산)에 후원금을 전달하고 지역 아동의 복지향상을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지역발전기금사업은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대를 통해 아동의 권리 증진을 지원하는 권역 사업이다. 담양군 대치지역아동센터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으로부터 후원금을 지원받아 대치지역아동센터와 샘물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재능 나눔 활동 프로그램 ‘친구가 같이 걷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담양=정일남 기자



목포 세안종합병원, 연산동에 성금

의료법인 해민의료재단 세안종합병원(이사장 강상진)이 최근 목포시 연산동에 240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강상진 이사장은 연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활발히 활동하면서 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은 물론 마스크 기탁 등의 연이은 나눔을 실천하여 지역사회에 큰 귀감이 되고 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연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여성 청소년 주니어 속옷 지원 사업비로 사용된다.

강상진 이사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며 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승경 기자



무안읍 새마을부녀회, 봄맞이 환경정화

무안군 무안읍 새마을부녀회(회장 양복순)가 최근 새봄맞이 환경정화 활동에 나섰다.

이번 정화 활동은 무안읍 새마을부녀회 3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법원 삼거리부터 국도변 쓰레기를 수거했다.

이날 회원들은 겨우내 방치돼 있던 쓰레기를 수거하고 도로변 주변

정비에 나서며 환경지킴이 역할에 앞장섰다.

양복순 새마을부녀회장은 “봄을 맞아 무안읍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무안읍 이미지 전달을 위해 정화 활동을 추진했다”며 “지속해 환경정화 활동을 펼쳐 아름답고 깨끗한 무안 만들기 실현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무안=박주현 기자